테마칼럼

여성세계 | 정치프리즘 | 경제의 눈 | 문화 향기

양성평등 새로운 가족질서가 만들어진다

김 효 선
〈여성신문 발행인〉

> 새로운 신분등록법의 의미는 무엇보다 개인의 인권이 가족의 질서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내년 1월을 기점으로 유교적 전통과 문화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 일대 '문화혁명'이 일어난다. 부계 중심 혈통과 질서로 유지돼온 기존 가족제도에서 장손조차도 결혼 당시 부모의 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마련된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듦으로써 가족관계 안에서의 절대적 평등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엔 본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결혼, 이혼 사실 등이 기재된다. 이에 따라 호주인 남성을 기준으로 개인의 전체 삶의 기록을 관리하던 기존 호적제도는 폐지된다.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관행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내년 1월 어머니 성·본 선택 가능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호적 정리를 통해 이제까지 함께 살아온 자신의 가족의 호적에서 빨간 줄로 '퇴출'당한 후 남편의 호적으로 강제 '입양'당해야 하는 호적제도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혼을 했을 경우엔 다시 친아버지의 호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코미디다. 여성을 교환가능한 '재산' 쯤으로 간주해버리던 원시시대의 관행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다.

이 새로운 신분등록법의 의미는 무엇보다 개인의 인권이 가족의 질서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많은 여성 관련 폭력 문제를 기사로 다루면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가정이란 결국 모래성에 지나지 않음을 절감해왔기에 더더욱 그렇다.

이런 고무적인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 부족한 아쉬움과 그에 따른 과제는 남는다.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의 부계 중심의 위계질서를 변혁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이름이 왜 '가족관계등록부'냐는 것이다. 실제 내용은 개인별 신분등록부에 가까운데도 말이다. 이는 여전히 가족을 무엇보다 최우선 하는 정서에 더해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혹시나 가족해체를 가져오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보수층을 달래려는 심리적인 위안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가족관계등록제의 근거가 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의 목적을 기술하는 제1조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가족관계 증명서가 1차 목적이요, 개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는 증명서는 오히려 부차적 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보다는 여전히 가족 중심'

이에 따라 혼인 혹은 이혼의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할 때 본인 외에 부모 이름까지 함께 신고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절차가 따른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분류 단위와 증명 형식만 개인일뿐 가족관계의 변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가족주의를 뛰어넘어 개인과 프라이버시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돼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시행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는 남성 중심의 수직적 가족관계에 대한 변혁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얼만큼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느냐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 대 용

허리병 예방에는 운동이 최고

최근 55세 이하 직장인들의 결근 원인 중 감기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허리 통증이라고 한다.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전 인구 중 50~8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허리 병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병률은 한창 일할 나이인 35~55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 수술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허리 병 환자가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의사도 처음부터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없다. 다만,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게 치료계획을 세우며, 담당의사와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질환의 발생은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제거하면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질환을 제대로 알면 효과적인 치료도 가능할 것이다. 먼저, 전문의와 상의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싶다.

흔히 디스크라 부르는 것은 병명이 아니다. 디스크는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디스크 자체가 병명처럼 불리고 있다.

디스크의 일반적인 증상은 허리를 앞뒤로 구부리거나 펴기 힘들고 허리 근육이 경직돼 허리 근육이 아프고, 아침에 허리가 아파 일어나기 힘들다.

또한,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오래 걷거나 앉아 있지 못하며, 다리가 저리거나 쑤시고 붓는다. 피곤하고 의욕도 없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도 증상이다.

생식기 작용이 감퇴해 성욕도 없어진지고, 변비 증세가 함께 대장에 가스가 많아진다.

활동량과 운동량이 부족해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비만해지며, 잘못된 자세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20~30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디스크에 걸리는 일이 다반사다.

단순 반복 작업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갖는 경우,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서 요통이 더 발생 한다.

진단은 환자에게 질문해 알아보는 문진이 가장 중요하다. 문진 후 만져 보고, 두드려 보고 하는 이학적 검사로 의사는 약 90% 정도 진단에 확신을 하게 된다.

이후 단순 방사선 검사(X-ray), 전산화 단층 촬영 (CT), 자기공명 영상검사(MRI), 혈관 초음파 및 골밀도 검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치료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자가운동 등 비수술적 방법이 원칙이다.

디스크로 인한 요통과 좌골신경통은 90%가량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법을 통해 증상이 경감된다. 약물이나 수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환자의 허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떠한 수술도 정상 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허리 관리가 필요하다. 수영·걷기운동·자전거타기·스트레칭·등산 등의 운동이 허리 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허리디스크로 진단받았을 때는 다양한 치료방법에 대해 척추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본인에 맞는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은 차선이며,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광주우리병원 김대용 대표원장〉

기 고

신 종 해

식물의 지혜를 배우자

풍란과 콩란이 심어져있는 란 화분이 책상 위에 하나 놓여 있었다. 싱싱한 녹색을 바라보는 즐거움에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며 관찰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윤기가 없이 빛 바랜 노란색으로 변해 가면 거름을 얹어 주고, 진딧물을 잡아주며,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풀면 식물들은 환한 미소와 싱그러움으로 내게 답례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화분 속의 콩란이 위 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가장 가까이 두고있는 책상 위의 콩란이 살려 달라는 몸짓으로 긴급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분명 벌레가 콩란을 먹고 있는 것이다. 몸통은 화분 속에 다 숨기고 고개만 살짝 내 놓고 콩란 뒤쪽에서 갉아먹고 있으니 앞쪽에서 보일 리가 없다. 핀센트를 가지고 잡아당기니 생각보다 큰 민달팽이가 딸려 나온다. 얼마 전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친구가 민달팽이 잡는 방법으로 수박 껍질을 화분 옆에 놓아두면 야행성인 달팽이는 밤에 수박을 먹으러 껍질위로 올라온다고 일러 주었다. 몇 번 시도하여 상당량의 달팽이를 퇴치하였는데도 아직 남은 달팽이가 콩란을 먹고 있었다.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콩란에게 한없이 미안하였다. 내가 기르지 않고 자연에다 놔두었더라면 스스로의 삶을 터득하고 적응하여 더 싱싱하고 윤이나게 잘 자랐을 텐데 하는 미안함이다. 사실 모든 식물들은 자연에 잘 순응하고 적응한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가뭄이나 홍수 그리고 태풍에 적응하기 위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대비를 한다. 혹한기에 대비하여 잎을 떨어뜨리고 가지만이 겨울을 난다. 그리고 봄이 되면 새싹을 내밀고 한 해를 시작한다. 이 사실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인간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다. 그리고 가정교육과 초중고 대학을 다니며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수 십 년 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가 하면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모른다. 질서며 공중도덕이 무너진지 오래다. 원시 사회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렇다. 자동차 문명이 그랬고 정보화 사회가 더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사회로 이끌어 가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스스로 삶을 터득하여 다툼 없이 질서정연하게 함께 사는 식물들을 한번 보라고. 지리산, 금강산, 무등산 등등의 산천 "자연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지" 서로를 이해하며 더불어 사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인간사나 식물사나 고난과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다. 가뭄이나 홍수 태풍을 대비하는 식물처럼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스스로 터득하여 봄이면 씨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황금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광주여자고등학교 교감〉

대학생 음주문화 심각한 상태다

대학에서는 동아리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술잔을 돌리며 자신들과 신입생들이 같은 배를 탄 동지임을 확인시키고 또 확인하려고 한다.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은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하는 식으로 너그럽게 봐주기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풍토도 문제다.

음주 청소년들은 술에 취하면 급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친구, 선후배 간의 말다툼 끝에 싸움을 하거나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거울을 깨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또 집단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범하게 된다.

"누구는 술 먹으면 실수 안 하나, 같이 술 마신 여자도 책임이 있지 뭐"하며 억지를 쓰는 청소년들의 말은 어른들의 궁색한 변명과 쌍둥이처럼 똑같다.

그리고 음주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기억능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자살행위이고 살인행위이기도 하다. 대학생 음주, 그것이 무한대로 낭만적일수만은 없다.

▲김재형·광주시 북구 북동

인터넷이용 가입절차와 해지절차 이렇게 달라서야

얼마전 인터넷 이용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내에 따라 해지버튼을 누르고 상담원을 기다리는데 5분이 지나도 다른 고객과 상담중이라는 멘트와 통화대기음만 흘러나왔다. 급기야 다음에 다시 걸어 달라는 멘트와 함께 그냥 끊어져 버렸다.

두 번, 세 번을 전화를 걸어도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가입버튼을 누르니 아뿔싸 상담원이 바로 받는 것이 아닌가. 그 허탈감이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다.

상담원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니 해지 담당자를 바꿔주겠다는 말과 함께 통화대기음이 들려 왔다. 그러나 또다시 전화가 자동으로 끊길 때까지 그 어떤 상담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전화를 해 가입버튼을 누르니 역시 바로 받았지만 자기 부서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통화할 수 있는 해지 담당자가 있다며 연결해줬다. 그런데 역시 5분 정도를 기다려도 통화대기음 뿐 상담원과의 통화는 할 수 없었다.

그때 인터넷 해지를 위해 약 45분을 허비했지만 해지는 끝내 하지 못했다. 내 전화비를 쓰면서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엄청 열을 받았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하니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국민을 애먹이는 이런 기업의 행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류용규·광주시 남구 서동

사 설

지방발전 가로막는 신도시 건설 재고해야

박준영 전남지사가 13일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지방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박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이 지속될 경우 전남을 비롯한 지방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이날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그동안 신도시 건설은 무분별할 정도로 추진돼 수도권 일극체제를 심화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를 조장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돼 왔다"며 "이제 신도시 건설과 같은 수도권 과밀화 정책과 특정 지역만 살찌우는 왜곡된 국가발전 모델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신도시는 최근 발표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까지 포함해 지난 19년간 무려 15개나 개발했다. 총 면적 5천326만평에 87만 호의 주택이 공급돼 350명이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다. 수도권 신도시는 지방의 인구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지방몰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8.2%에 달했다. 1970년에 비해 무려 2.5배 늘어난 것이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지난 1989년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신도시 건설이 큰 몫을 했다.

무분별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을 공룡화하고 지방의 인구 이탈과 공동화를 가속화할 뿐이다.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값 안정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신도시가 건설될 때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지방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집값 안정은 지방에 사람과 돈이 모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6·15선언 7주년 남북관계 성숙 계기로

6·15남북공동선언 7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엄청나게 변화했다.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해 남북 화해 및 협력의 시대가 열렸고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경제분야의 협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개성공단에 남한의 기업이 진출했고 금강산 관광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시험운행을 한 철도와 도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유라시아로 연결되고 있다. 국한적이지만 남북 경제공동체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에 이뤄진 각종 접촉이나 회담은 194회에 달한다. 연평균 27.7회의 회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8월 1차 상봉 이후 지금까지 20여차례나 실현돼 1만6천명이 가족들을 만났다. 6·15남북공동선언이 없었으면 실현될 수 없는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해 북한의 핵개발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됐고 쌀과 비료 등의 지원을 둘러싸고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남북관계는 정치적·국제적 상황에따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화해와 협력에 필수조건이다. 일부에서 대북지원을 '퍼주기'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6·15기념축전에 정부 대표단이 빠진 것도 남북관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6·15선언 7주년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6·15정신'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다. 남북은 6·15 정신을 되새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앞날이 주시된다.

無 等 鼓

'겉보리 서 말'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東夷傳)엔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고구려의 혼인 풍속이었던 '서옥'(壻屋)에 대한 기록이다.

〈처음 말로써 혼인을 정하고, 다음에 여자의 집(大屋) 뒤에 소옥(小屋)을 지어 서옥(壻屋)이라 부른다. 저녁에 사위가 여자집에 와서 문 밖에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여자와 잘 것을 세 번 원하면 여자의 부모는 소옥에서 잘 것을 허락한다. 남자는 다음날 떠날 때 전백(錢帛)을 놓고 간다. 여자는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장한 뒤에야 남자의 집에 살러간다〉

서옥제는 '데릴사위'가 우리의 오랜 풍속이었음을 보여준다. 사학자 손진태(孫晉泰)도 봉사혼(奉仕婚)의 원형이라고 봤다. 우리 민법도 그런 관습을 인정, '입부혼인'(入夫婚姻) 제도를 뒀다. 호주나 호주 승계인과 결혼하는 남자는 여자의 가(家)에 입적(入籍)하고, 부부간의 출생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다.(민법 제826조 4항)

그렇지만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눈치밥을 먹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을까? 하여 '칫간과 처갓집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했다.

통계청의 '2006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4가구가 부모와 함께 산다. 장남이 모시는 집은 지난 2002년 24.6%에서 21.8%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딸과 사위가 모시고 사는 비율은 3.6%에서 5.7%로 증가했다.

'데릴사위'는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돈 있는 집안의 여자를 만나는 것은 사회적 계층 상승의 유력한 수단이 됐다.

재산이 1천억원대라는 사람이 인터넷 결혼업체를 통해 '데릴사위'를 공개 모집했다. 종교와 학벌, 직업 등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 270명이 몰렸다고 한다. '겉보리 서 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옛 말이 다시 생각나는 때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